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25
----------	-----

제안연월일 : 2024. 3. 12.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주 문

- 의료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함.
-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대정원을 확대하여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함.
- 이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함.
- 또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의 즉각적인 진료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2006년 이후 의대정원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사들의 부담은 심해지고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이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의사의 본분인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대학교 의과대학을 신설하라!
- ▶ 정부는 필수의료 및 열악한 지방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구·경북 소재 의대에서 신청한 정원 411명을 최우선적으로 증원하라!

4. 결의안 제출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회장

5. 결의안 : 붙임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경상북도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의사들의 조속한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하고 있다. 특히, 의사가 부족하여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뽕뽕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경상북도에는 16개 시군(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는 A등급 7개 군(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울릉), B등급 1개 시(문경), C등급 10개 시군(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진)이 있으며,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는 5개 군(청송, 영양, 성주, 봉화, 울릉), 혈액투석(인공신장실) 의료취약지는 3개 군(청송, 영양, 울릉)이 포함되어 도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있다.

또한, 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며, 서울의 4.8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열악한 수준에 있다. 의사와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경북도내 여러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악순

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2023년 9월 12일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엄중한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의 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써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즉각적인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환자가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지방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현장 이탈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의사와 의사단체는 조속한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필수의료 및 열악한 지방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구·경북 소재 의대에서 신청한 정원 411명을 최우선적으로 증원할 것

을 촉구한다.

2024. 3. 12.

경 상 북 도 의 회

[참고자료]

1.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현황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현황 : 98개소[경북 16]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6호(2021.12.13.)

구 분	시도명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		비고
		계	지역명	
1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2	경기	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3	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4	충북	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5	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6	전북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7	전남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8	경북	16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군위군 포함
9	경남	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0	제주	1	서귀포시	

2. 분만취약지 현황(2022년 기준)

□ A등급 분만취약지

- ①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이고, ②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가임여성인구비율 30%이상(①② 동시에 충족)
- 해당지역 : 7개 군(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전국 9개 시도, 30개 군(인천, 경기1, 강원4, 충북2, 충남1, 전북3, 전남6, 경북8, 경남4)

□ B등급 분만취약지

- ①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 또는, ②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가임여성인구비율 30%이상(①② 하나라도 충족)
- 해당지역 : 1개 시(문경시) * 문경 : 외래산부인과 4개 운영 중
 ※ 전국 8개 시도, 17개 시군(경기1, 강원3, 충북2, 충남3, 전북3, 전남1, 경북1, 경남3)

□ C등급 분만취약지

- A,B등급 취약지를 제외하고, 분만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인구수, 수요가 부족하여 운영이 어려운 지역
- 해당지역 : 10개 시군(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진)
 ※ 전국 10개 시도, 61개 시군(인천, 경기4, 강원, 충북6, 충남9, 전북5, 전남2, 경북10, 경남6, 제주)

□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지원 현황

구분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원	시군자체
A등급 (8개)	-	1개(의성)	5개(군위, 청송, 영양, 봉화, 울릉)	2개(영덕, 청도) (영덕아산병원 외래지원·청도 보건소 외래 운영)
C등급 (10개)	7개(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예천, 울진)	-	2개(고령, 성주)	-
B등급 (1개)	-	-	-	-

※ (참고) 도내 분만취약지 제외지역 : 4개 시·군(포항, 경주, 구미, 경산)

3. 도내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2022년 기준)

- ▶ 의료취약지 : 전국(9개 시도, 27개 군)
 - 경북 : 5개 군(청송, 영양, 성주, 봉화, 울릉)
- ※ 전국 27개소
(인천1, 경기3, 강원5, 충북2, 충남2, 전북3, 전남4, 경북5, 경남2)
- ▶ 선정기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의료이용실태 및 분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취약지 지정
(①, ② 동시 만족)
 - ①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소아청소년 인구비율이 30% 이상
 - * 소아청소년과의 진료과목 특성상 총 인구 중 소아청소년 인구(만 0세~18세) 대상
 - ② 60분 내 병원급 의료이용비율인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TRI: Time Relevance Index)이 30% 미만인 시군구

4. 도내 혈액투석(인공신장실) 의료취약지 현황

(2022년 기준)

- ▶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 전국(5개 시도, 11개 군)
 - 경북 : 3개 군(청송, 영양, 울릉)
- ※ 전국 11개소(인천 1, 강원 4, 전북 2, 전남 1, 경북 3)
- ▶ 선정기준(①and②)
 - ① 전체 혈액투석 이용 건 중 60분내 접근 가능한 의료기관 이용율 30% 미만
 - ② 혈액투석 가능한 의료기관에 60분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 이상

5. 시군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2022년)

※ 군위군 제외

행정구역별	2022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A÷B×1,000)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A)	주민등록인구(B)
경상북도	2.2	5,591	2,577,152
포항시	2.6	1,291	496,650
경주시	2.2	543	249,607
김천시	1.9	266	139,324
안동시	2.8	430	154,610
구미시	2.1	838	408,110
영주시	2.2	226	100,749
영천시	2.1	217	101,088
상주시	2.0	187	94,823
문경시	2.1	149	70,373
경산시	2.1	572	267,725
의성군	1.8	91	50,186
청송군	2.1	52	24,295
영양군	1.4	22	16,022
영덕군	2.0	71	34,650
청도군	2.3	94	41,614
고령군	1.9	58	30,353
성주군	1.9	79	42,566
칠곡군	1.4	159	112,487
예천군	1.7	95	55,755
봉화군	1.5	44	30,139
울진군	1.8	86	47,030
울릉군	2.3	21	8,996

* 전국평균 3.2명, 서울시 4.8명(국가통계포털)